

# 10주년 임실N치즈축제 3일 개막

### 3~6일 천만송이 국화꽃 향연·유럽형 장미원 등 볼거리·공연·체험 다채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임실읍 일원에서 개최된다.

먼저 초대 가수로는 3일 개막식에 TV조선 미스트롯2 TOP2 박지현, 트롯아이돌 김희재, 미스트롯3 우승자 정서주, 유투버가수 탐현, '돌리다' 서지오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총출동해 10주년을 맞은 특별한 임실N치즈축제를 알리는 화려한 개막 축하공연을 펼친다.



오는 3일 제10회 임실N치즈축제 개막을 앞두고 심민 군수와 임실을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아이들, 군청 직원들이 치즈 놀이기 체험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치즈축제 폐막공연에는 팬텀싱어 시즌1 우승팀인 포르테 디 콰트로 전 멤버이자, 불타는 트롯맨 최중우수자로 트로트 가수로 대변신에 성공한 서울대 석학과 출신의 손태진의 무대가 펼쳐지며 큰 축제 마지막 날까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상적인 볼거리로는 3만여개가 넘는 국화 화분과 3백여개의 현악국과 화사하게 조성된 유럽형 장미원이 축제 기간 방문객들에 선보일 예정이다. 치즈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화사한 국화꽃과 함께 테마파크에서 치즈마을로 이어지는 코스모스의 향연도 눈여겨 볼만하다. 밤에는 환상적인 LED 야간경관 조명이 국화꽃과 유럽형 장미원의 화려한 장관이 빛을 더해 최상의 볼거리를 선사한다.

신나는 즐길거리로는 10주년 맞이 10개 테마에 70개의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임실치즈의 주재성을 최대한 살린 길이 2,000m(1,000m\*2줄)의 스트링치즈를 방문객이 직접 늘려보는 '쭉쭉 늘려 내 치즈'가 펼친다.

또한, 숙성치즈 200kg을 소재료 방문객이 간단하게 체험하고 맛보는 참여 프로그램인 '관광객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 디지털 풍미체험' 등도 준비됐다. 임실N치즈 숙성치즈 모형을 굴러 성공존에 도달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임실N숙성치즈 롤링 순금(축제 기간 10분) 행운 이벤트' 등 치즈를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로는 10주년을 기념해 평소 할인을 잘 하지 않는 임실N치즈 유제품들을 축제 기간 4일동안만 20% 가격 할인해 판매한다. 이와 함께 일 년 이상 숙성한 고다치즈와 홀스타인 젖소보다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맛이 좋고, 영양분이 많은 '저지방' 젖소 원유 숙성치즈 시식과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당분을 넣지 않아 자연적인 맛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무가당 요거트 시식 및 판매행사를 갖는다.

입맛을 사로잡을 먹거리로는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엄표로 향토음식의 향연도 펼친다. 대중들이 선호하는 소머리곰탕과 육개장, 다슬기탕 등 주메뉴 12종과 닭발볶음과 흥어회무침을 비롯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활용한 김밥과 치즈떡볶이 등 부메뉴 45종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지난 2015년 첫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면서, 50여만명이 넘게 찾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급성장했다"며 "올가을 대한민국 치즈 수도 임실군에서 열리는 치즈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별한 축제를 즐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결의

### 남원시, 전북자치도·전북 국회의원·전북 연구 국회의원 등과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이하 학교) 설립 대상 부지 공모에서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 및 전북 연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들이 유치결의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전북 연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경식 남원시장 등 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남원 유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각 당 도당위원장이 초당적으로 수월해 성사됐다.

현재 추주시에 중앙경찰학교가 있고 후보지로 선정된 2곳 모두 충남으로, 수도권에 향한 충청권에 중앙경찰학교가 추가로 설립되어서는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 심화,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라며, 170만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한목소리로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남원시가 학교 설립 부지로 제시한 구 기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는 166만㎡의 넓은 기재부 소관 유류 국공유지로, 토지매입 부담이 없어 정부의 건축재정지조와도 부합하며, 별도의 행정 부담 없이 신속 개발이 가능하다. 타 후보 지역의 경우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약 7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 토지매입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남원 운봉은 풍수지리적으로 정감록에 실은 지로 기록될 만큼 치안이 뛰어나다.

이에 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 교육, 한국경마축산고 활용 승마교육, 수영 등 지역 기반시설과 연계해 교육 생활에게 특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지리산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예술자원,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2개 고속도로(광주-대구 고속도로, 순천-원주 고속도로), 2개 고속철도(KTX·SRT), 2030년 달빛철도 개통 등 영호남 교통 중심지로, 국도 24호선(이백-운봉) 추가 개량사업 등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방보조금 고강도 구조조정

### 순창군, 전반적 평가 거쳐 내년도 예산 편성 반영

순창군이 지방보조금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다.

군은 정부 세수 부족과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모든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철저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분야나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 등에 지원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다수가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기조상 보조금 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군의 세입 여건 전망도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404개 사업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했으며, 1차로 사업 추진부서들의 자체평가 후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층 평가를 거쳐 모든 사업을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총 5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군은 △'미흡' 평가 사업은 예산동결 또는 감액, △'매우미흡' 평가 사업은 2025년도에 지원이 중단할 예정이며 현재 각 사업부서에 결과를 통보해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상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조치는 군민에 대한 지원축소가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보조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우수사업으로 전환하고 보조금이 새는 것을 방지해 보조금 운용의 건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포도 성숙기인 7월부터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강수량이 부족해 과실의 당 축적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짙은 색을 띠어아 할 캄캄포도가 적색을 띠고 당도 부족으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남원시는 이번 피해로 인해 농가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에 재해지원을 요청하고 기 후 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배기술 연구와 농업인 교육 등을 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고랭지 포도 재해 보상금 지원

전국 최고품질의 포도 생산을 자부하는 남원시 고랭지 포도(캠벨) 농가들이 올해의 경우 고온과 가뭄에 의한 포도 착색 불량으로 큰 피해를 겪었다.

이번 피해는 주로 고랭지(아영, 인월, 산내, 운봉)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착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색과가 되었고 당도 또한 낮아져 포도의 전반적인 품질이 하락하면서 포도 농가가 착색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 수확을 끝내고 내년 농업을 준비해야 할 고랭지 포도 과원에서는 피해 과실 처리에 농가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포도 성숙기인 7월부터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강수량이 부족해 과실의 당 축적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짙은 색을 띠어아 할 캄캄포도가 적색을 띠고 당도 부족으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남원시는 이번 피해로 인해 농가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에 재해지원을 요청하고 기 후 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배기술 연구와 농업인 교육 등을 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도통동, 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 나서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수혜 촉진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2024 기본형 공익직불제 △2024 권역작물직불제 △남원시 귀향, 귀농귀촌인이 되면 받는 특별지원 △2024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2024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2024 농업인 면세유가격 안정사업 △2024 과수특작분야지원사업 △2024 쌀 경쟁력 지원사업 △2024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사업 △2024



사과·복숭아 생산단지조성사업 △2024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2024 농민공익수당 △2024 축산관련 종사 교육 △2024 유류비우처리 사업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벼멸구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 피해벼 40kg 1포대 2000~5000원 차등 지원... 심 군수, 농식품부 장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임실군이 벼멸구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피해벼에 대해 군비를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심민 군수는 "최근 뜻하지 않게 벼멸구가 크게 발생해 벼 재배면적의 53%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임실군 자체로 피해벼 40kg 1포대에 군비로 2,000~5,000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실군이 벼멸구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피해벼에 대해 군비를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1일 심 군수는 임실지역 벼멸구 피해 현장을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농업 재해 인정, 피해벼 공공비축미곡 높은 수매 등급 규정,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을 상향 등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심 군수는 "벼멸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달 30일 군은 심 군수를 주재로 한 지역농협장, 농업 관계 부서장, 12개 읍·면장들과 벼멸구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 농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8월 15일 이후 장기간 높은 야간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짧은 기간 벼멸구 증식으로 인한 피해 대응 방안과 벼 조기 매입 등 농가 지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회의에서 군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최근 발생한 벼멸구 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가를 위로하고, 쌀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40kg 1기비대, 1등급 2,000원, 2등급 3,000원, 3등급 4,000원, 피해벼(등외)에 5,000원을 농협 자체 수매 물량 및 피해벼 매입(정부 수매)에 추가 지원기로 했다.

군은 이미 농업 재해 재난지원금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벼멸구는 벼대의 즙액을 섭취하는 해충으로, 벼멸구 피해를 본 벼는 노랗게 변하며, 심할 경우 완전히 말라 수확이 불가능하거나 쌀 품질을 저하시킨다.

지난달 24일 기준 전북자치도 벼멸구 피해 면적 7,187ha 중, 임실군이 1,928ha로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군은 향후 수확량 감소 최소화를 위해 벼멸구 피해 필지 조기 수확 및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산물벼 조기 수매로 농가 수확 시 애로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가입률은 78.7%로 미가입 농가의 가입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마을별 현장 지도 및 농가 교육 등 병해충 집중 예방과 방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농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김관영 도지사, 도 농업기술원장은 지난날 22일 임실군 덕치면을 현장 방문하여 벼멸구 피해 현황 및 방제 대책을 점검했다.

심민 군수는 "지속되는 쌀값 하락과 이상기후로 인한 벼멸구 피해 확산에 따라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수확 유도 및 산물벼 조기 수매로 농가 피해 최소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이달부터 요실금 치료비 지원 시작

남원시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비 지원 사업을 전격 시작한다.

요실금이란 노년층에 흔히 발생,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 나와 위생적·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는 질환으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하게 떨어뜨려 질환의 치명성보다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암(social cancer)이라고도 불린다.

이에 남원시는 2024년 7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도내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이번 요실금 치료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 통

### 순창군 옥천인재숙, 예비 중 1·2 대상 특강 참가자 모집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관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옥천인재숙 다담돌반 특강'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예비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으로 총 6시간 동안 옥천인재숙에서 이루어지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기초 강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강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1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옥천인재숙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강천산

#### 트레일레이스 5일 개최

오는 5일 순창군 강천산 일원에서 '제1회 강천산 트레일레이스'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도농교류 활성화와 고향사랑 기부제의 혁신적인 연계를 목표로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가자에게만 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지역 발전과 도농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번 강천산 트레일레이스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고향사랑 실천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순창과 지속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인 도농교류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는 5km, 10km, 21km(하프) 세 종목으로 진행되며, 대회 당일 현장에서도 추가 신청을 받아 최대한 많은 참가자들이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에 이어지는 고향 사랑 기부

친환경바이오 지육회 대표와 전북아고로 김남수 대표가 지난 26일 임실에 고향사랑기부금 각 4백만원씩, 총 8백만원을 기탁했다.

친환경바이오(남원시)와 전북아고로(익산시)는 친환경지재 및 비료를 생산·납품하는 기업으로, 임실군복숭아공선회 광생훈 회장의 열렬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됐다.

군은 임실 대표 특산품인 임실치즈·요거트와 임실치즈를 활용한 소시지를 시중 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담배팩으로 제공하고 있어 상반기부터 고향사랑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육회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참여하게 됐다"며 "기부금이 임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남수 대표는 "지역 농산물이 건강하게 재배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서 임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